

日 수출 中企 10곳 중 8곳, 교류확대 ‘희망’… FTA ‘필요’

중기중앙회, 경제협력 인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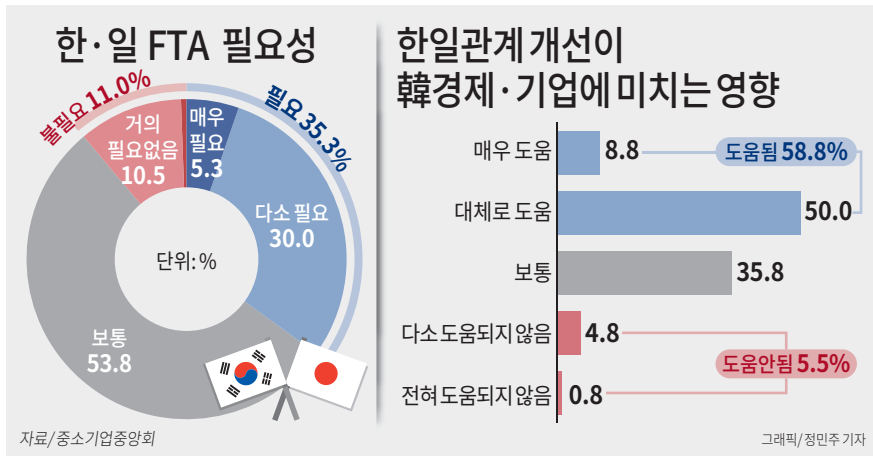
기업 66%, 양국 경제관계 ‘동등’ 24% ‘韓 선도’, 11% ‘韓 뒤쳐져’ 교류확대 의향 응답 5대 5 ‘비슷’

일본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일본과의 교류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또 한국과 일본 양국이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야한다는 생각이 많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필요성에 대해선 ‘필요하다’ (35.3%)가 ‘필요없다’ (11%)보다 3배 가량 많았다.

이같은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한 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수출 중소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한·일 경제협력 중소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해 23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5.5%는 양국의 전반적인 경제 관계에 대해 ‘동등하다’고 답했다. 23.5%는 ‘한국이선도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뒤쳐진다’는 답변은 11%에 그쳤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우리 경제나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8.8%가 ‘그렇다’고 밝혔다. ‘보통’이라는 답변은 35.8%였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5.5%에 머물렀다.

‘일본과의 교류 확대 의향’에 대해선 응답기업의 50.3%가 ‘그렇다’, 49.8%가 ‘아니다’로 절반씩 갈렸다. 다만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 중에선 75.5%가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현재 일본을 대상으로 사업하고 있는 기업들의 선호도가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기업들보다 높았다.

일본시장에 대한 장점(복수응답)으로는 ‘지리적 인접성’ (46.8%)과 ‘우수

한 기술력·품질’ (46.3%)이란 답변이 우세한 가운데 ‘한류 등 한국에 대한 선호’ (24.9%)도도 장점으로 꼽았다.

‘확대 희망 분야’(〃)로는 ‘수출 확대’가 82.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외에 ▲원·부자재 수입 확대 및 공급안정(19.9%) ▲합작투자·M&A등 대일 투자 확대(10%) ▲인적·기술교류 확대(7.5%)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일본산 원·부자재, 부품 등 대체 완료(37.2%) ▲일본시장 자체의 낮은 매력도(28.6%) ▲양국 관계 불확실성 우려(20.1%) 등은 일본과의 교류 확대를 주저하는 이유로 꼽혔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은 한일 경제 교

류 확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전시 등 판로개척 지원’ (54.5%)이나 ‘업종별 기술·인적교류 확대’ (38%), ‘보험·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31.8%) 등을 주로 원하고 있다.

또 한일 양국이 경제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해야 할 1순위 과제로는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통상이슈 공동대응’ (48.5%) ▲양자·다자간무역협정 체결 및 가입 확대(32.3%) ▲기술유출, 저가덤핑 등 신흥국과의 무역갈등 해소(8.5%) 등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구 구조 변화 등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경제·산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품, 기술, 인력 등에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한일 중소기업 간의 실질적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오는 25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한·일 중소기업 경제 포럼’을 열고 양국 중소기업간 교류와 협력을 실질적으로 넓히는 출발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중앙회-중기부

모범중기인 등 5개부문 中企 유공자 포상 접수

대한민국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주역인 중소기업 유공자에 대한 국내 최대 규모의 포상이 시작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 포상하는 ‘2026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을 오는 12월12일까지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830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 주간(5월 셋째주)에 열리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모범 중소기업인(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5개 부문으로 신청을 받는다.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등)을 수여한다.

/김승호 기자

LCC, 대형기에 ‘여객+화물’ 전략… 수익성 키운다

‘밸리카고’ 적극 활용

파라타항공, 내일부터 사업 개시 적재율 100% 채워… 경쟁력 재고 티웨이·에어프레미아도 실적 상승



파라타항공 비행기. /파라타항공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수익성 방어 전략으로 밸리카고(여객기 하부 화물)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대형기 도입이 늘면서 밸리카고 수익성이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파라타항공은 24일 다낭발 인천행 WE202편을 시작으로 밸리카고 사업을 본격 개시한다. 첫 투입 기체는 A330 대형기로, 첫 운항부터 페이로드(적재율) 100%를 채웠다. 계절·시황에 따른 변동이 큰 여객 수요와 달리 화물 수요는 비교적 안정적인 만큼 파라타항공은 대형기를 앞세워 화물 경

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스웨덴 교통·환경 전문 연구기관 NTM은 A330·B777이 A320·B737 등 협동체 기종보다 최대 세 배 가까이 많은 화물을 싣는 것으로 평가한다. 협동체의 밸리카고 적재 한도가 약 19~20톤인 데 비해 A330은 46~51톤, B777은 60~70톤 수준이다.

대형기 도입 효과는 실적 변화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글로벌 물류기업 엑스트란스글로벌은 티웨이항공의 화물

처리량이 지난 2022년 말 A330 도입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2022년 7800톤 수준이던 화물 물량은 A330 투입이 본격화된 2023년 1만 6800톤으로 크게 늘었다. B787-9를 주력으로 운용하는 에어프레미아의 지난해 총매출은 4916억 원이며, 이 중 화물 매출 비중이 약 13.2%로 나타났다.

글로벌 항공화물 수요는 전자상거래와 인공지능(AI) 서버·반도체·배터리 등 고부가 화물 증가에 힘입어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기를 운용하는 항공사들은 넉넉한 화물 적재 능력을 앞세워 화물 사업 비중을 키우고 있으며, 티웨이항공은 자동차 부품·기계류 등 중량 화물을 ULD(항공화물 컨테이너)에 실어 나르며 화물 처리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의약품 운송 국제표

준(CEIV Pharma)·신선식품(CEIV Fresh) 인증 취득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본사의 글로벌 물류 플랫폼 기업과 협업체 전자상거래(에커머스) 운송 절차를 단순화하고 양국제·휴대폰·자동차부품 등 미국행 일반 화물 비중을 키우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아마존 에어카고와 인터라인 계약을 체결해 인천~호놀룰루 구간을 맡으며 미주 화물 노선도 넓혔다. 파라타항공은 글로벌 물류기업 엑스트란스글로벌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물량 확보 구조를 마련했다.

기단과 전략이 다른 저비용항공사들도 밸리카고를 통해 화물사업 저변을 넓히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월부터 밸리카고 운송을 본격화해 전자상거래·전자제품·자동차 부품 등을 주로 싣고 있다. 제주항공도 여객기 밸리카고를 활용해 화물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리얼월드 류중희 대표(오른쪽 세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리얼월드 ‘물류 AI 휴머노이드’ 공동개발 업무협약

CJ대한통운이 리얼월드와 전략적 협업을 체결하고 물류 AI 휴머노이드 연합을 본격 확대한다.

23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피지컬AI 기업 리얼월드(RLWRLD)와 ‘물류용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obot Foundation Model)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략적 시너지 강화를 위한 시드2(Seed2) 라운드 지분 투자에도 참여한다.

이번 투자 및 사업협력을 통해 양사는 실제 물류 현장에 적용 가능한 AI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특히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뇌’ 역할을 하는 RFM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현장 실증 및 상용화를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CJ대한통운은 물류센터 내 로봇 자동화가 가능한 공정을 발굴하고, 기술 실증 및 사업성 검증을 주도한다. 또한 실제 물류 현장에서 축적되는 파킹분류·포장 등 작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RFM이 학습하고 고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리얼월드는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고정밀 로봇핸드 제어 기술을 중심으로 물류용 RFM 개발에 들어간다. /김승호 기자

‘K-벤처’ 30주년… 제1회 벤처주간 26일 개막

중기부 ‘벤처주간’ 법제화 계획

올해로 30년을 맞은 대한민국 벤처가 혁신축제를 열고 ‘K-벤처정신’을 다시 한번 다진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를 ‘제1회 벤처주간’으로 정하고 서울 등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를 연다.

중기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통해 향후 벤처주

간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벤처 30주년과 모태펀드 출범 20주년을 함께 맞는 특별한 해다. 정부는 그동안 벤처·스타트업에 국가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자금·기술·인력 등 전 분야에서 과감한 지원을 이어왔다. 아울러 청년과 미래세대에 혁신과 도전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중기부는 벤처기업법 제정(1997년), 모태펀드 결성(2005년), TIP

S 지원사업 시행(2013년), 규제자유특구 지정(2019), 유니콘 프로젝트 추진(2020), 벤처투자법 제정(2020년) 등 굵직한 이정표를 제시하며 우리 경제사의 여러 번곡점 속에서 늘 대한민국 벤처생태계의 성장 흐름을 견인해 왔다.

올해 처음 여는 벤처주간 역시 지난 30년간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산업의 혁신을 이끌어온 성과를 공유하고, 현재 시점에도 ‘K-벤처’가 미래산업을 이끌 핵심 성장엔진을 환기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주요 행사로는 ▲2025 M&A 컨퍼런스(26일, 경기 일산 킨텍스) ▲2025 벤처 천역기업 기념식(27일, 서울 옐타워) ▲창업기획자(AC)와 함께하는 붐업 콘서트(28일, 서울 팀스타운) ▲대한민국 벤처 청춘 페스티벌(29일, 서울 데스커베이스 캠프) ▲벤처 30주년 기념식 전야제 및 기념식(12월1~2일, 서울 파르나스 호텔) 등이 두루 열릴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 벤처주간을 ‘벤처정신’이 꽃피는 대한민국 대표 혁신 축제로 발전시키고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더 대담하게 도전하고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튼튼한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